

월간중앙 51주년

Monthly Joongang Media Introduction

중앙일보 PLUS

회 사 명	중앙일보플러스(주)
대 표 명	이 상언
설립년차	51년 (월간중앙 기준)
인력현황	200 명 (취재기자 106명, 편집인력 외 10명 외)
소 재 지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4층 (순화동 KG타워)
지역네트워크	경인총국, 대전총국, 대구총국, 부산총국, 광주총국
중앙그룹	www.joonganggroup.com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3월 중앙Sunday 매체 통합 운영 • 17년 포브스 100주년 창간호 발행 (USA) • 16년 중앙일보미디어플러스에서 중앙일보플러스 사명변경 • 16년 중앙시사미디어, 중앙복스, 중앙일보미디어플러스 법인 통합

JMagazine & Joongang Sunday

- 중앙시사매거진, 중앙SUNDAY 제작·운영
- 이코노미스트, 포브스, 월간중앙, 뉴스위크

Joongang ilbo Health & Life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제작·운영
- '라이프 트렌드', '건강한 당신' 섹션 제작·운영

Book & Education

- 중앙복스 스테디셀러 & 여행도서 제작·운영
- '공부의신 공신캠프' 학습 캠프 사업 운영

Web & Mobeile Contens

- 디지털콘텐츠 제작·운영 (카드뉴스, 영상)
- 네이버, 페이스북, 유튜브 등 바이럴 홍보 대행



Joongang Daily & Sunday

- 현장 취재 뉴스 제작
- 경제.시사.산업 뉴스 제작
- 라이프.건강.교육섹션
- 자문위원그룹운영
- 지역 총국 운영(4개)



Presswork Publishing

- 월간중앙 매체 운영 (51년)
- 포브스 매체 운영 (100년/16년)
- 이코노미스트 매체 운영 (34년)
- 뉴스위크 매체 운영 (27년)
- 단행본 출판·배포
- 각종 포럼·IMC사업



Digital Contents Publishing

-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운영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영상)
- SNS, 버티컬 채널 개발 운영
- 포털, 신문, 방송 IMC 운영
- 각종 Native AD 운영
- 웹 서비스 기획·디자인·개발



Education Mentor&Camp

- 테마별 교육 캠프 운영
- 국제교류 및 유학사업
- 멘토링/자기주도 학습캠프
- B2B, B2C 제휴 교육 캠프

월간중앙 51주년

Copyright by JoongangilboPLUS Co.,Ltd. All Rights Reserved.

『세상을 보는 힘, 월간중앙』

월간중앙은 사회 통합보다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선정주의를 경계하며, 불편부당의 정론이라는 시사지 본영의 존재가치와 역할을 염두에 두는 '독자와 함께하는 시사지'를 지향합니다. 냉철한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다가올 앞날을 전망하고 분석하는 미래 지향적 시사지입니다.

INFORMATION

매체 명	월간중앙
매체 사이즈	205 * 280 (mm)
발생사	중앙일보플러스
발행인	이상언
인쇄 사업소	(주)타라티피에스
인쇄 방법	윤전/오프셋 (Web/ Offset)
창간일	1968년 4월
발행주기	월간지

창간 50년 특집호

월간중앙

세상을 보는 힘
2018/05
우수콘텐츠상
2018

커버 스토리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조건
**‘단군 이래 최초, 코리안이
운명의 주인 될 기회’**

역대 정상회담 주도한 전직 통일장관들의 총연
정세현·정동영·이종석
“北 비핵화 결단 이끌어내야”

김정은의 개혁·개방 모델은?
상하이-하노이-아바나-트리폴리행 중 택일

일방 대화도 김정은, 군부 반발 가능성은?
‘핵심 엘리트’ 대규모 탈북 결행설도

비교연구
한반도 위기 해법!
고종 황제와 문재인 대통령 선택

심층취재
김철, 내로남불 골판왕 논란
김기식 낙마·참여연대사단도 ‘흔들’

문재인 정부 1년 국정운영 성적표
외교·홍보는 ‘우수’...업치·경제는 ‘낙제’

정권 현실제거를 일제분석
‘임·하·홍’, 참여연대, 성공회대 전성시대

심층추적
드루킹, 친문실세와 검은 거래 있었나
막강 댓글부대로 지방선거 개입 시도

6·13 지방선거 특집기획
여아 아킬레스건은 ‘바로 여기’

보수단체 만능 자유총연명의 흑역사
정권 무침 따라 내쫓기는 ‘총재님’의 운명

월간중앙·대한노인회중앙회 공동기획
同行-고령사회로 가는 길
‘벨시예이징’으로 이룬 제2 인생

[2018년 5월] VOL. 182

71000원
www.joongang.co.kr

CIRC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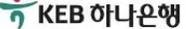
총 발행 부수	84,783부 / 한국 ABC협회 가입 
정기구독 부수	18,083부(2018년 12월호 정기구독자 기준)
기업 특판 부수	21,942부 (금융, 항공사, 공항, 면세점, 병원, 호텔 등)
전국 서점 및 홍보용	14,100부
공동 프로모션 (멤버십 매거진, 사외보)	우리투자증권 VIP 고객: 15,000부 (DM발송) 하나골드클럽: 26,000부 삼성생명 / ING생명: 43,000부 (DM발송)

INFORMATION FOR ADVERTISEMENT

발행일	17일 / 월
광고 마감일	15일 / 월

Co-Promotion













Key Contents

Special Interview

이달의 이슈

기획 특집

정치 기획

종교·문화

Special Report · Politician

- 2018 대한민국 핫 피플 6人 - "밝음과 어두움이 함께한 2018년"
- 정치 특집 - 여권 미래권력 5인의 강점·약점
- 특별 기획 - 한국당 초선의원들에게 '보수야당'의 행로를 묻다

Humanities · Politics · Business · Society ·

- 현장 취재, 심층 취재, 탐사 보도, 기획 특집, 인터뷰 & 현장르포
- 김영희 대기자의 한반도 위치, 동북아 정세, 글로벌 포커스, 기획 시리즈

History · Life & · Literary

- 근 현대사, 동양 문화·역사 & 인문학, 문화 이슈, 스타 인터뷰
- 문학 인터뷰, 작가 소개, Book 신간 소개

Naver News St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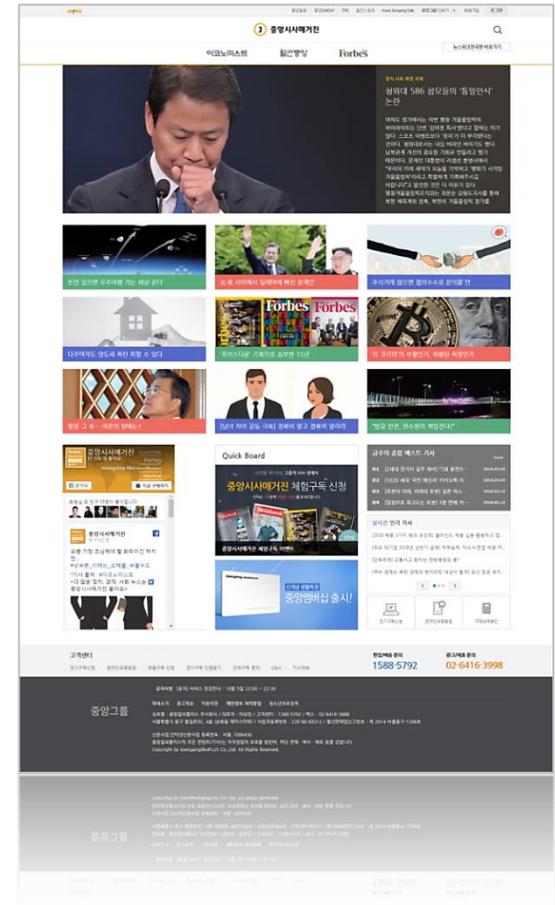
- 네이버 뉴스 스탠드 검색 제휴 운영
- 월간중앙 단독 취재 기사 운영

[Naver News Stand - 매거진/전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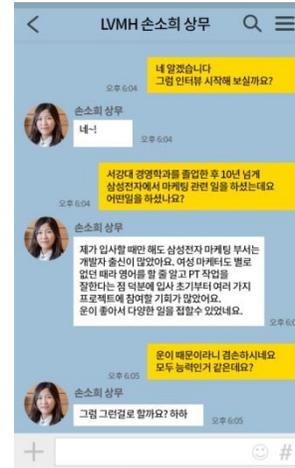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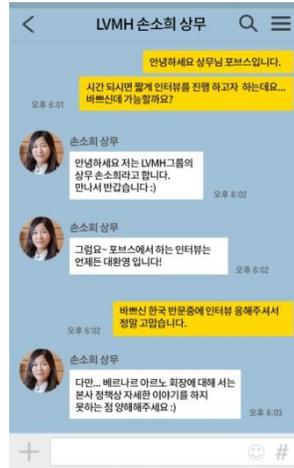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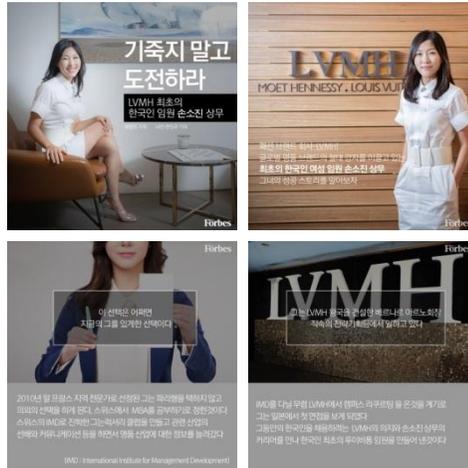


Naver Post & FaceBook

- <중앙시사매거진> 네이버 공식 포스트 운영
→ 월간중앙, 포브스코리아, 이코노미스트, 뉴스위크-한국판
- 누적 구독자 1.3만 명 (시사·경제 진성(眞成) 구독자)
- 주요 온라인 기사 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
- 디지털콘텐츠 연계 Native AD 콘텐츠 제작·유통



Story Interview



✓ Naver Post: 17,696



✓ Face Book: 17,313



Card News



『독자 분석』

월간중앙은 사회 통합보다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선정주의를 경계하며, 불편부당의 정론이라는 시사지 본연의 존재가치와 역할을 염두에 두는 '독자와 함께하는 시사지'를 지향합니다. 냉철한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다가올 앞날을 전망하고 분석하는 미래 지향적인 30~40대가 주 독자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자의 80% 이상이 정치·경제 사회에 관심이 높은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자정보

직업	관리사무직	36%
	자유업	21%
연소득	7,000만 원 ~ 1억 원	74%
	4,000만 원 ~ 7,000만 원	26%
거주지	서울	43%
	경기·부산	26%
연령	30대 ~ 40대	60%
	50대 ~ 60대	31%

“월간중앙 50년 발자취] 자유와 민주 거목(巨木) 키우는 밑거름이 되다”



1968년 4월 1일 발간된
월간중앙 창간호



1995년 6월 '시사월간 원' 창간호와
1999년 3월 월간중앙 재창간호.



2018년 4월 발간된
창간 50주년 특대호



2019년 ~

월간중앙의 긴 여정의 출발은 1967년 8월 10일 중앙일보 출판부가 단일 부서로 분리되면서부터다. 초대 주간(主幹)은 이중복(2010년 별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다. 창간호는 국판(234×159mm) 440쪽 분량으로 제작됐다. 발행부수는 당시 시사종합지 중 가장 많은 4만 권이었다.

월간중앙이 다룬 영역은 정치와 시사에 머물지 않았다. 문화와 예술, 학문까지 시야를 넓혔다. 책 후반부는 문화·예술·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양물을 실었다. 생각을 표현할 무대가 부족했던 당대 문화예술인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았다. 전반부는 시사, 후반부는 인문·예술로 나눈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월간중앙은 창간사에서 밝힌 대로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권력을 향해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창간호는 박정희의 3선 개헌 저지에 국민이 나설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당시 신민당 당수였던 현민(玄民) 유진오(兪鎭午·1906~1987)의 기고문 '분계선상의 헌정질서'를 통해서다. 현민은 “설령 경제성장의 목표가 달성된다 하더라도 근대화나 경제건설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제물로 할 수는 없다”고 박정희 정권의 경제건설 우선주의를 통렬히 비판했다. [더보기](#)

[단위/ 천 원]

구 분	월간 중앙
2 nd cover spread 표지2, 표지2 대면	10,000
3 rd cover 표지 3	10,000
4 th cover 표지 4	15,000
내지 1 (표2 대면)	8,000
내지 2-3 양면	10,000
내지 4-5 양면	8,000
목차대면 이후 프리미엄 지면 1P	4,000
일반내지 1P	3,000

- 부가세 별도 / 광고대행수수료 포함 기준입니다.
- 기획기사의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Thank you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4층 (순화동 에이스타워)

사업부문 광고 2팀 | 팀장 신보현

Tel : 02 6416 3991 | Mobile : 010 9699 7379 | E mail : sin.bohyun@joins.com

<http://jmagazine.joins.com> | <http://jplus.joins.com>